

2023년 부호장공파 제106회 정기총회 개최



부호장공파총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주연)는 1월 11일(음력 12월 20일)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종친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종원(宗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주연 파총회장을 비롯하여 역대 파총회장을 역임하였던 권병균, 권오정, 권영건 등 3명의 고문과 원로회원, 권철환 안동총회장, 권오익 대총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해마다 정기총회를 안동시 어가골길(태와동) 일원정(一源亭)에서 개최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축친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시내와 거리가 가깝고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 종친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하고 있다. 총회를 하기 앞서 작년 8월 13일 안동권씨 안동총친회 권희택 고문이 별세한 후 권고문의 장남 재현씨가 행사장을 방문, 장례 때 많은 축친들이 문상하

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권기운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및 파조위패 망배, 상음례(相揖禮), 회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2023년도 예산안 승인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주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정기총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해서 축친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리 부호장공파는 안동권씨 15개 파 가운데 종파 다음 두 번째 파로 축친들이 많은 바 역할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칭찬한 후 “권철환 안동총회장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박수로 환영하자”고 말했다. 권철환 회장은 축사에서 “저는 작년 7월 7일 종원들의 추대를 받아 종친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정식 취임식이나 명패마저 만들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회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제까지 음, 면, 등을 순회하면

서 느낀 것은 축친 간 서로 이끌어 주고 안동권문을 발전시키자는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삼대사(三太師) 앞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며 자랑한 후 “권가로 살아 온 것이 축박이며 후손들도 새로운 1천년을 이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기운 사무국장은 코로나로 경로잔치를 취소하고 지난 2021년 3월 20일 권주연 회장이 서면 총회로 취임을 하는 등 작년 10월까지 일어났던 7개 항목의 경과보고를 했다. 곧이어 권태욱 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입, 지출, 회계 및 제반 사항을 감사한 것을 보고 했으며 권기운 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결산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종중토지(宗中土地) 매각안(案)인데 시내 노하동는 2필지와 옥동 2필지를 운영위원회에서 매각키로 한 이 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했던 것이다. 회의장에서 축친 10여 명이 토지매각에 관하여 열띤 논쟁을 벌여 찬, 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매각하지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년간 끌어오던 종중토지 매각 문제는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좌회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가능성 겨울 양말 세 켤레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총회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안동종친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권주연 회장과 권정수, 권오근 두 부회장 등 세 사람이 건배 제의를 한 뒤 식사가 끝나자 모두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부산종친회 계묘년 신년 하례회 개최

부산종친회(회장 권성용)는 지난 1월 10일 저녁 부산 연산동 해양뷰페에서 계묘년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하례회는 부산종친회 임원, 단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태사공 시조님께 망배를 올린 뒤 참석자 상호 음례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서 송암(성용) 종친회장의 참석 인사 소개와 상술 신임 부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종친회 월로인 송운(재복) 고문과 덕산(영훈) 천등회장의 “새해 건강과 복운”을 기원하는 덕담으로 이어졌다.



성용 부산종친회장

하례회 전경

송암(성용) 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종친회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었다고 전제하고, 코로나 영향이 줄어들면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월로 어르신, 전직 회장들께서 이룩한 성과를 거울삼아 더욱 단합하는 종친, 보다 발전된 종친회를 만드는 기회로 삼자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대총회 회장 대신 축사에 나선 송계(길상) 대총회 삼임부회장은 성용 종친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와 영호 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친 모두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

피를 흘리며 새해를 맞이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집행부가 바뀐 청년회와 전국 종친회의 꽃인 부녀회를 비롯한 단체에 격려와 함께 분발을 요청하는 등 임원 모두가 지원과 협찬으로 종친회 활성화에 힘을 보태어 주기를 당부하였다.

계속된 격려사에서 원광(영호) 명예회장은 회장 재임 시를 회상하며, 전직 세 분 회장님과 임원들의 큰 도움으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우리가 부산종친회를 전국 제일의 종친회로 자부하는 만큼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나 성용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를 축친과 단체 조

조가 힘을 모아 새해를 맞이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례회 말미에는 기타 토의에 이어 부녀회장단과 함께 권문의 노래를 제창하고, 운산(중원) 자문위원장의 선창으로 부른 만세삼창을 끝으로 제1부 행사를 모두 마쳤다.

제2부는 저녁 식사 후 노래와 여흥으로 함께 어울려 축친 간 친목을 다지었다. 특히 이날 하례회는 대총회 권해옥 회장께서 보낸 축하 화환과 권길상 삼임 부회장에서 기증한 기념 타월 150매로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었다. 2023. 1. 18.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재영

대전종친회 2023년도 시무식 거행



안동권씨 대전종친회(회장 권용기)는 2023년 1월 5일 2023년도 시무식을 대전시 서구 괴정동 참외골 사무실에서 권용기 대전종친회 회장과 권동원 고문(참의

공 이사장), 권선상 수석부회장, 권명호 사무국장, 권정순 총무와 권지원 청장년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은 시무식

인사말과 새해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친회 화합 및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를 당부하고, 대한민국 중심인 대전이 우리 안동권문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전종친회는 대전시 중구 침산동에 위치한 뿌리공원에서 개최된 2022년도 효문화 축제에 단합된 모습으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부사응모 70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대총회에서 격려금 50만 원을 수령하여 뿌리공원에 설치된 안동권씨 조형물에 깃 이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였다고 말했다.

대전종친회 고문이신 권충원 고문은 건배사에서 참석자 모두는 우리 선조님이 이룬 양반의 명예와 도리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안동권씨 대전종친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는 건배 제의로 힘차게 새해를 열었다. 또한 2023년도 4월 23일 울산에서 개최하는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시무식을 마친 후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사무국장 권명호

경산시 종친회 계묘년 신년 교례회 가저



신년 인사를 하는 오흥 종친회장(왼쪽에서 세번째)

경산종친회(회장 권오흥 북아공파 35세, 권치과 의원 원장)는 1월 11일 시내 권가네 식당에서 계묘년 신년 상견례를 가졌다. 경산종친회는 1978년 10월 8일 결

성된 이후 매년 봄과 가을 야유회를 가졌고, 2000년부터는 홀수월 4째 주 목요일에 격월로 모임을 하는데, 1월은 특별히 초순에 상견례 모임을 하고 5월과 10월에

는 조상 숭배와 종친 단합을 위한 야유회 행사를 계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야유회 행사를 하지 못했다.

계묘년 첫 모임은 종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5월에는 야유회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특별히 계묘년 새해에는 종원 가정에 경사가 겹쳐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락곡과 다과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권옥순(부정공파 35세)의 장남 김정석(33세, 국토부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국토부장관 표창과 함께 6급으로 승진을 했고, 2월 18일 상견례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오흥 회장의 막내 성준 군은 1월 8일 많은 지인과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식을 가졌다.

권오흥 회장은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아들 혼사에 많이 참석하여 축하와 후의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계묘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축친 간에 더욱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하는 종친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성용 평생교육국공영합회장 겸 한청타임즈 기자

祝禱축도 권海玉권해옥 安東權氏안동권씨 大宗會長대총회장 逸蹟일적 祈享기향 壽福수복 大吉대길 祥상

권해옥 안동권씨 대총회장의 뛰어난 업적을 추구하고 장수와 복을 누리고 대길하시길 기원합니다.

崇祖高節 송조고절 조상님을 숭상하고 고매하신 절조로써
賢教善導 현교선도 명성토록 어질고 착하게 고도를 하셨네
種德敷惠 종덕부혜 널리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天祿無極 천록무극 하늘이 주시는 복이 영원히 끝이 없으시네

2023년 癸卯계묘 신정 元旦원단 추밀공파 38世 石堂석당 權公權冠公범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31)



“나라는 사람의 몸이라면 역사는 사람의 영혼이다”(杏村 李岳, 1297~1364)라고 고려 말경에 이미 설교한 바 있다. 그는 본관이 고성(固城, 경남) 이씨이고 독립운동가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1858~1932)의 외계 선조(先祖)다. 석주는 안동출신이며 서산(西山) 김홍락(金興洛, 1827~1899, 본관은 의성, 鶴峰 金誠一 후손)의 제자로서 1895년부터 구한말 안동 의병장 성대(星臺) 권세연(權世淵, 1836~1899, 본관은 안동, 冲齋 權櫟의 후손) 등과 규합지원하였다. 1911년 서안주로 망명하여 무장독립투쟁을 기치로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장,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정의부 독판, 상해임정 초대 국무원이자 홀룡 역사학자이며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정치가요 실학자였다. 일찍이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1936)가 갈파(喝破)한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피맛민 민족주의 무장 항쟁 독립운동가의 절규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사람의 몸이라면 역사... 디어 물러나 봉계(鳳溪)에 살았다. 그 후로는 벼슬을 제수하여도 부임하지 않았다. 두 姓氏를 섞지 않는 의리를 지켰다. 양촌이 죽자 삼년을 心喪하고 박문이 죽자 똑 같이 하였다. 『남명집』속집續集 『아은길선생전』, 『남명집』권2 『엄광론嚴光論』)

이를 참고하여, 후일 남명과 되게 및 그들의 제자들이 포은 정몽주에 대한 출처의리와 시비논란이 있었던 것과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의 아은 길재에 지조를 흠모한 『아은죽부治隱竹賦』를 참고하여볼 때 여헌의 ‘출처의리와 통통원원’에 대한 생각이 영남우도의 남명학파와 비슷하다고 본다.

또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B. Croce, 1866~1952: 이탈리아 철학자)라는 주장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E.H. Carr, 1892~1982): 영국 역사학자)라는 동서고금의 선현석학(先賢碩學)들의 역사철학적 명언들을 새겨볼 때, 지시간 역사와 인물을 새롭게 조망하고 당시 승자인 기록자들의 왜곡된 의도를 간파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서술을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하여 이 시대 현실을 사는 우리 역사-철학 등 인문 학인들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공부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호에서 거론된 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에 대해 민본정치-출처(出處) 사상 및 출장입상(出將入相)의 실천적 실험사상을새롭게 음미할 만한 것으로 본다. (『주역』 『산봉고과』, 『논어』 『위령공』, 『공자가어』 『제자행』, 『남명집』 『학기유편』, 정인홍·조경·허목·송지열 『남명행장·신도비명』, 허균의 『호민론豪民論』, 황중희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정약용의 『담론湯論』)

이들 문헌의 ‘대장부론(大丈夫論)’과 ‘문무일체론(文武一體論)’에 대해서도, 남명은 [을묘사직소] 『단성현감사직소』에서 문정왕후(대비) 파명 윤씨에 대한 ‘궁정의 일개 과부’나 명중에 대해 ‘왕위를 이은 외로운 일개 상궁자(고사孤嗣)’로 칭하는 ‘파천황의 상소’, 유교 민본사상의 맹자 혁명론을 주장한 ‘민암부민賦詩’ 그리고 ‘칼(傲義劍; 內明者敬 外斷者義)’과 ‘방울 성성자(惺惺子)’를 찬 위풍당당한 선비로서 남명과 임진왜란 때 정인홍, 김변, 광재우를 비롯한 57명의 제자 의병장 배출 그리고 ‘서리방국론’과 ‘공물폐해론’ 등은 훗날 실학자들로 이어져 대동법과 성호 이익의 [장리론臚吏論]과 [무묘武廟]와 ‘무학(武學)설치 주장, 다산 정약용의 [향리촌郷里論], [감사론監司論]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문무겸전’과 ‘출장입상’의 인물로 중국의 북송시대 범중주(范仲淹, 989-1051), 왕수인(王守仁, 1472~1528) 등과 고려의 감강찬(姜希顔, 948-1031), 조선조의 정인선(鄭彦信, 1527~1591), 권율(權輿, 1537~1599), 정문부(鄭文孚, 1565~1624) 등을 거론보충할 수 있다. ‘산림정지’ 효신(內 암 정인홍)에 그 궁정적인 면을 제대로 계승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이 철학의 인문학적 의의라고 보며, 외척과 결탁하여 봉당정치(서인-노론) ‘반정’이 궁정 쿠데타적 ‘임금을 신하가 선택하는 태군(宅君)의 부정적인 면은 우암 송시열의 노론 후예들이고 세도정치와 삼정문란 끝내 일제에 관작과 명칭일왕의 은사금을 받은 친일 매국노(이완용; 노론의 마지막 영수領袖)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이번 31회 원고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전후하여 특집 다큐 이육사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김상옥 의사 및 대전MBC와 도울TV 등에서, ‘백범 김구와 약산 김원봉’, ‘여성독립운동가’, ‘의열단 100주년’ 등의 유튜브를 다시 보게 되어, “만절(晩節)을 보면서 초심(初心)을 안다.”는 어록에 절실하게 동감한다. (다음호에 계속)